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전후의 신입생 특성 및 인식 비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²

윤태호 · 윤소정 · 윤 식 · 이선희 · 정인숙¹ · 박병규² · 이상엽 · 장철훈 · 김해규 · 임병용 · 정해진

= Abstract =

Comparison of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Into Graduate Medical School System

Tae Ho Yoon, MD, PhD, So Jung Yune, PhD, Sik Yoon, MD, PhD, Sun Hee Lee, MS, Inh Sook Jeong¹, PhD, Byung Kyu Park², MD, PhD, Sang Yeoup Lee, MD, PhD, Chulhun L. Chang, MD, PhD, Hae Kyu Kim, MD, PhD, Byung Yong Rhim, MD, PhD, Hae Jin Jeong, MD, PhD.

Medical Education Unit,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¹,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²,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medical school students and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Methods: Study subjects were 131 medical students from a national university and 113 applicants of a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We develop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sking abou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perception of missions of medical education and career plan and student activities during school.

Results: Students from th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dical student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y also showed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education, were more supportive of student union activities and were more anxious about economic and health problems than medical student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perception of missions of medical education and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tudents when developing educational policies for these older student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ncludes a restricted sample, and generalization of results should be done carefully. Thus, more extensive, wide-ranging studies would be useful.

Key Words: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Medical college, Graduate entry medical school system

교신저자: 정해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Tel: 016)271-8384, Fax: 051)254-1930, E-mail: jeonghj@pusan.ac.kr

* 본 연구는 2006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소 연구비 (2006-5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서 론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제도는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소양과 자질을 가진 양질의 전문 의료인, 의과학자 및 의학 관련 분야의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어 왔다(Huh, 2001).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학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제반 특성 및 인식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4년간의 대학생활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특별한 사회 경험 없이 의과대학에 입학한 기존의 의과대학(이후 의대) 신입생들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들만이 주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으며(Park *et al.*, 2006; Lee *et al.*, 2007), 의과대학생(이하 의대생)과의 특성 및 인식의 차이를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두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전원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개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및 학생 지도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의전원에서의 교육 제도 정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전원과 의대 신입생 간의 특성 및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의전원의 거시적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부산대학교 의예과에서 의대 1학년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의대생과 첫 번째 의전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신학기 초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 수는 유급생을 제외한 의대 1학년 학생 131명, 의전원 신입생

113명이었다.

조사범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입학 전 거주지, 종교,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의학 및 의대에 대한 인식(의대 전반, 교수진, 학생, 역사와 전통, 시설, 환경 및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의대의 기능에 대한 견해 및 졸업 후 희망하는 분야),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큰 고민거리, 및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희망 여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서 기존 의학교육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변수를 선정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가장 중요한 가치에는 3가지 다중 응답이, 가장 큰 고민에는 2가지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개발 후 의학교육 전문가 5인 및 교육 전문가 1인에게 내용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의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시행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의대 신입생과 의전원 신입생들의 두 집단 간 분포의 차이는 Cochran Mantel Haenszel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AS 9.1을 이용하였다.

결 과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분포에서 의전원 신입생은 남자가 51.3%, 여자가 48.7%로 남녀 분포가 거의 같았으나, 의대 신입생은 남자가 62.6%로 여자의 37.4%보다 더 많았다($p < .05$). 연령별로는 의전원 신입생의 평균연령이 27.8세로 의대 신입생보다 약 5세 정도 더 많았다($p < .001$). 입학 전 거주 지역별로는 의전원 신입생의 74.3%가 부산외 지역에 거주한 반면, 의대 신입생은 68.7%가 부산에 거주하였다($p < .001$). 종교에 있어서는 의전원 신입생의 경우 기독교가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교가 26.6%인 반면, 의대 신입생은 종교 없음이 5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불교(18.3%)의 순이었다($p < .001$). 부모의 교육수준은 의대 신입생의 부모가 의전원 신입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부의 직업과 관련하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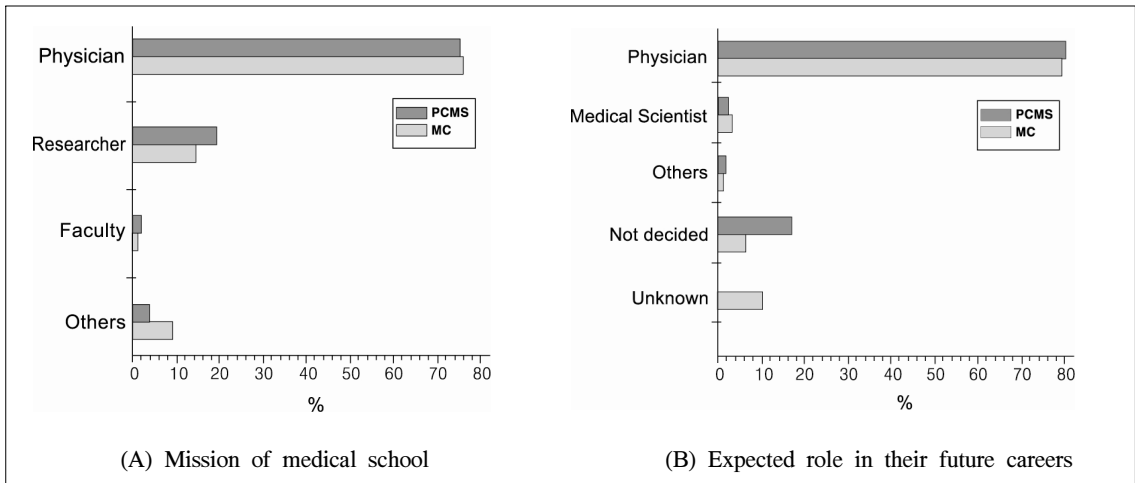


Fig. 1. Perceptions of missions of medical education and expected role in their future career between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and medical college.

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 의학 및 의과대학에 대한 인식

의학 및 의과대학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에서 의전원 신입생은 매우 만족 62.8%, 만족 33.6%임에 비해, 의대 신입생은 매우 만족 18.3%, 만족 61.8%로 큰 차이를 보였다 ($p < .001$). 교수진에 대하여 의전원 신입생은 매우 만족이 58.9%인 반면에 의대 신입생은 19.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01$), 학교 전통에 대해서도 의전원 신입생은 매우 만족이 52.7%인 반면, 의대 신입생은 17.7%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p < .001$). 학교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전원 신입생은 매우 만족이 53.1%이었으나 의대 신입생은 6.2%에 불과하였다 ($p < .001$).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족의 비율에서 의전원 신입생은 50.4%로 의대 신입생의 68.7%보다 낮았다 ($p < .005$).

반면 의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의전원 신입생과 의대 신입생 모두 일차의료인 양성이 75%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의학연구자의 양성은 의전원과 의대 신입생 각각 14.3%, 19.1%로 둘 다 낮았다. 또한 졸업 후 진로로서 임상의를 선택한 경우도 의전원 신입생과 의대 신입생 모두 약 80%였고, 기초

과학분야의 선택은 2~3%에 불과하였다 (Fig. 1).

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비율은 의전원 신입생의 경우 97%로서 의대 신입생의 84%보다 높았다 ($p < .001$).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도 의전원 신입생은 38.4%가 참여를 원하는 반면, 의대 신입생은 25.4%에 불과하였다 ($p < .01$).

대학생활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전원생과 의대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의전원 신입생의 경우 전문지식의 습득이 9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폭넓은 인간관계 73.5%, 교양 및 인격 도야 69.0% 순이었다. 의대 신입생 역시 전문지식의 습득이 87.8%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교양 및 인격 도야가 66.4%, 폭넓은 인간관계 50.4% 순이었다. 낭만 및 취미생활과 장래 직업 준비는 의대 신입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사회 참여는 두 집단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는 의전원 신입생의 경우 학업 (57.5%), 경제적 어려움 (33.6%), 대인관계 (28.3%), 건강 (24.8%), 장래 진로 (24.8%)인 반면에, 의대 신입생은 학업 (64.9%), 대인관계 (32.8%),

Table I. Important Values and Distresses during Medical School

	PGMS*	MC [†]
Values		
Building up his/her character	78 (69.03)	87 (66.41)
Obtaining professional knowledge	107 (94.69)	115 (87.79)
Enjoying life outside medical school	5 (4.42)	22 (16.79)
Friendship	83 (73.45)	66 (50.38)
Preparing for future career	33 (29.20)	55 (41.98)
Having active social life	22 (19.47)	21 (16.03)
Friendship with opposite sex	1 (0.88)	5 (3.82)
Others	1 (0.88)	1 (0.76)
Distresses		
School work	65 (57.52)	85 (64.89)
Health	28 (24.78)	21 (16.03)
Economic difficulty	38 (33.63)	24 (18.32)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10 (8.85)	11 (8.40)
Relationships with friends	32 (28.32)	43 (32.82)
Career plans after graduation	28 (24.78)	43 (32.82)
Unable to adjust to university life	4 (3.54)	6 (4.58)
Unable to adjust to medical school life	5 (4.42)	7 (5.34)
Others	15 (13.27)	11 (8.40)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and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 PGMS: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 MC: Medical College.

진로 (32.8%), 경제적 어려움 (18.3%), 건강 (16.0%)이었다 (Table I).

고 찰

연구 결과, 의전원 신입생은 의대 신입생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여학생과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아버지의 직업 등을 고려해볼 때, 의전원 신입생의 경제적 수준이 의대 신입생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 지도와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의전원과 의대 신입생간의 연령 차이를 통해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 및 학습전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령 차이가 의학영역에서 학습태도와 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다소 상반되게 나와 (Choi *et al.*, Lee *et al.*, 2007, 1996; Shin, 2006),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연령의 성인 학습자는 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고 있어 의전원 학생이 더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Park *et al.*, 1998). 따라서 향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결론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성별 비율에 대한 결과에서는 의전원 신입생 중 높은 여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학교생활, 교육 및 향후 진로 선택에 있어 여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의전원 신입생은 의대 신입생에 비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전원 1기라는 자부심과 함께 보다 긍정적인 학교생활에 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간다면 학습 동기(Ames, 1992), 성취도(Dyrbye *et al.*, 2006), 및 바람직한 의사상(Shapiro *et al.*, 1998)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 교육의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의전원과 의대 신입생 대부분이 일차의료인 양성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기초의학을 희망하는 신입생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였는데, 다양한 학부를 바탕으로 한 의전원 도입으로도 기초의학의 부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들(Choi *et al.*, 1996; Shin, 2006)을 뒷받침하는 결과이었다. 따라서 기초의학자 육성, 의학 관련 다양한 방면에서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업에 대한 부담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지만, 의전원 신입생은 이미 학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낭만이나 취미 활동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학업에 좀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과 높은 연령으로 인해 어려운 의학공부를 견강한 상태에서 잘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 확대, 기숙사 시설 및 편리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학생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 학교의 사례로서 이 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의전원과 의대 신입생 간의 특성과 인식 차이를 밝혀 의전원 체제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 교육의 운영과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실태 조사와 장기적 접근의 종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Ames, C.(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s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84(3), 261-271.
- Choi, J. S., Juh, D. J., Chai, J. Y., Ohrr, H. C., Hwang, I. K., & Kang, D. Y.(1996). A study of medical education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8(2), 189-199.
- Dyrbye L. N., Thomas, M. R., & Shanafelt, T. D.(2006). Systematic reviews of depression, anxiety, and other indica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U.S. and Canadian medical students. *Academic Medicine*, 81(4), 354-373.
- Huh, K. B.(2001).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44(10), 1034-1038.
- Lee, S. J., Kang, J. W., Kim, H., Kim, S. R., Lee, S. I., & Lee, S. J.(2007). Comparison of the first year curricular achievements between students of the medical college and th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1), 73-81.
- Park, K. H., Hong, D. H., Oh, J. H., Park, Y. B., Shin, D. J., & Lee, Y. D.(2006). The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s of students at gachon medical school.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8(3), 289-296.
- Shapiro, S. L., Schwartz, G. E., & Bonner, G.(1998). Effects of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on medical and premedical stud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1(6), 581-599.
- Shin, J. S.(2006). A review on the courses of the introduction of post-baccalaureate basic medical education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8(2), 121-132.